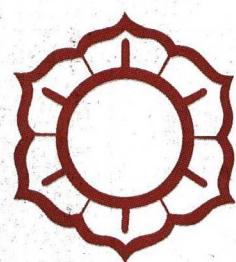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회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2년
6월 1일
토요일
제35호

이 달의 종조법설

물을 읽지 않는 것은 말의 때가 되고 부지런하지
않는 것은 집의 때가 된다. 꾸미지 않으면 목의
때가 되고 방임한 것은 일의 때가 된다.

발행인 : 혜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전국에서 펼쳐진 부처님 세상

월드컵성공개최 위해 거리마다 연등물결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
요식이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
사원에서 성대하게 진행이 되었다.

특정 종령은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에서
“부처님 오신날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등불로써 나의 신심을 더욱 밝힐
시시키고, 참 나의 자성을 밝혀나갑시다.

연등의 등불로써 신심과 정진의 등불로
전전(輶轉)시켜 수행의 등불을 밝혀 나

가자”고 하였으며 혜암 통리원장은 봉
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사비에 오신

뜻은 너와 나는 한 뿌리요 한 공동체라
는 이치를 일깨워 주시고자 온 것입니다.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연등축제는 이 세상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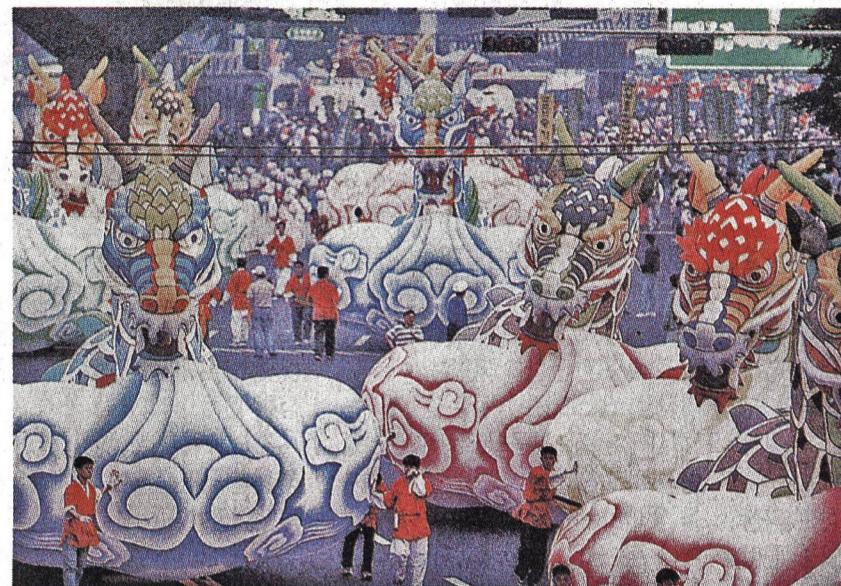
존재들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불국정토를 만들어 기겠다는 서원

의 미션이다”고 하였다.

특히 부산 제2동행렬에서는 의강 중앙

종의회 회장(삼밀사 주교)과 부산경남



계사 우정국로까지 이어지는 제2동행진
에는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2002개의
축구공 모양의 등과 다양한 장엄물이
선보여 서울의 거리를 연등의 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부산 지역은 부산역 광장에서는
“내 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의 주제
로 부산 연등축제가 열렸다. 2002년 월
드컵과 부산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봉축행사에서 영산재
육법공양등의 식전행사와 범어사 학
인스님들의 법고와 종성 저녁예불로 시
작된 봉축행사에서 성오스님은 “한가지
도를 다 알고 말에 현혹되질 않아 시방
정토를 바로 앞에 본다네”라는 법어를
하였다.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연등축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 인간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불국정토를 만들어 기겠다는 서원

의 미션이다”고 하였다.

특히 부산 제2동행렬에서는 의강 중앙

종의회 회장(삼밀사 주교)과 부산경남

교구 교구장 정정십전수(관음사 주교)
등 부산 지역 각 사원 스승님과 교도 그
리고 종립학교 동해중 학생 500여명이
참여하여 화려한 연등행렬을 이어갔다.

남북불교교류 종단협의회로 창구 단일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선불교도연맹 5개항 합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와 북
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태화)가 남북불교교류에 있어 창구를
단일화 및 남북불교교류 5개항에 합의
했다.

종단협 실무대표단은 지난 4월27일부
터 5월4일까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박
태화 위원장의 초청으로 평양을 비롯한
불교 관련 사찰을 방문하였다.

종단협 북한방문 실무대표단은 지난
6일 종단협의회 사무실에서 방북 결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불교교류 확대
와 북한 사찰 복원에 최대 협조 및 공
동법회 공동 발원문 발표 등 5개항을 합
의했다”고 밝혔다.

총지종 혜암 통리원장을 비롯 종단협
의회 사무총장 이홍파스님, 조계종 사회

부장 양산스님, 태고종 기획감사실장 우
혜공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김무원스님
실무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적인 존중 및
실천 △ 평화 통일을 위해 불교도의 노력
△ 상호 불교교류 확대 △ 6.15, 8.15, 부처님 오신날 동시법회 추진 및
공동발원문, 축원 발표 △ 북한 사찰 단
청불사, 신계사 복원, 동포애적·참보시
행 등 5개항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 박

태화 위원장과 합의를 했다.

또한 종단협 실무 대표단은 4월30일
북한 보현사에서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
과 심상진 서기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북한 스님과 1백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 불교도 공동법회를 봉행하
였다.

〈총지사 주교 법정사〉

동서문명의 가교로서의 불교사상

제2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본대회에서 다뤄

제23차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지난
5월 22일부터 26일(4박5일) 동안
동서문명의 가교로서의 불교사상의 주제로
이번 미노부 구원사에서 있었다.

望月海澈(身延山大學) 명예교수는 21

세기를 이끄는 불교의 이념 기조강연에
서 “法華經의 입장에서 21세기를 조망

하며 특히 사립과 환경과의 조화를 구

해야 할 시대이며 독선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서로가 소의경전을
기반으로 하여 석존의 宿願으로 되돌아
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불교
가 세계평화에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 강조하였다.

또 동국대학교 김상현교수는 동서문
명의 가교로서의 불교사상 기조강연에
서 “일련의 문명적 갈등이나 이로 인한
테러, 전쟁은 모두 문명이 기주의에서 비
롯된 상사가 넓은 모순이며 어떤 문명
도 외부와 脱離된 채 홀로 존재하는 경
우는 없다. 하나의 문명이란 언제나 다른
여러 문명과 提携한 상태로 존재한
다. 또한 문명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
종의 차이 등을 뛰어 넘어 서로 교류하
고 영향을 미친다”며 “元蕪의 화쟁론리
인 融二而一, 이는 동서문명의 융화나
공존을 위해서도 유효한 문리이다” 하였
다.

또한 대회 참석자들은 광명사, 평간
사, 동경 정토종, 요코하마 조동종 총지
사 본문사들을 방문하여 일본불교와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혜암통리원장은 “일본불교 특히 밀교
와의 교류 확대 그리고 의식과 의례의
연구를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많은 일
본 밀교종단과의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평했다.

본 종단은 혜암통리원장, 원송총무부
장(밀인사 주교), 지성재무부장(정혜서
원당 주교), 대원사회부장(덕화사 주
교), 법공 정사(부산 성화사 주교), 시
각화 전수(법성사), 최상관 전수(실보
사), 정장심(관음사 주교), 밀공정 전수
(흥국사 주교), 인선 정사(재단사무국
장)이 참석하였다.

총지종 혜암 통리원장을 비롯 종단협
의회 사무총장 이홍파스님, 조계종 사회

부장 양산스님, 태고종 기획감사실장 우
혜공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김무원스님
실무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 6.15 공동선언의 기본적인 존중 및
실천 △ 평화 통일을 위해 불교도의 노력
△ 상호 불교교류 확대 △ 6.15, 8.15, 부처님 오신날 동시법회 추진 및
공동발원문, 축원 발표 △ 북한 사찰 단
청불사, 신계사 복원, 동포애적·참보시
행 등 5개항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 박

태화 위원장과 합의를 했다.

또한 종단협 실무 대표단은 4월30일
북한 보현사에서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
과 심상진 서기장을 비롯한 20여명의
북한 스님과 1백여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남북 불교도 공동법회를 봉행하
였다.

죽비소리

事를 통해 真理를 보다

법부는 차별적 현상(事)에 집착하고 현자는 현상 속 법(眞理)을 본다. 오온(五蘊)의 정체 환(幻)임을 깨쳐야 때 반야지해 드러나고 일체 고통 벗어난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사(事, 현상)를 의지해(통해서) 그 속에 진리를 나타내시어(설법) 중생을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나니, 비유(譬喻)는 곧 법(진리)의 상징이라. 법이 비유(譬喻)요, 비유가 곧 법(진리)인 것인가 사민상대(四民相對) 그대로가 법계의 법문이요, 연기 현전(現前)한 그 당체 그대로가 비로자나 설법이다. 범부(凡夫)는 한치 앞을 모르고 현자(賢者)는 만리가 밝다. 처처의 저 바위들이 제불(諸佛)의 모습인줄을...

〈총지사 주교 법정사〉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진연의 세계로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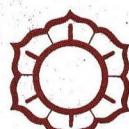
종령
특정
혜암
통리원장

중앙종의회 의장의장

총무부장 원 송
재무부장 지 성
교정부장 법 등
사회부장 대 원

중앙종의회 부의장

서울경인교구장 법 공
충청전라교구장 환 수 원
대구경북교구장 우 송
부산경남교구장 정 정 심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사설

부처님 오신날을 되새기며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존귀하니, 세상의 고통을 내 미망히 평안케 하리라(天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爲當安之)하며 2600여년 전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나투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으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걷는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중생을 깨치기 위해서 직접 중생의 몸으로 출기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직접 보여 줌으로 중생구제의 실천의 모습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무엇인가? 나와 모든 사람이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다함께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 부처님은 이러한 대승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 무소유의 정신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의 진정한 정신은 바로 2600여년 전에 직접 중생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보여주신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제각각 자기의 위치와 모양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어떤 존재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체 만물의 존재는 나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곧 나 자신이며, 타인의 고통과 아픔은 곧 나의 아픔과 고통인 등체대비의 정신입니다.

自卽他 他卽自, 一卽多 多卽一 是 타인에 대한 경쟁과 증오가 사라지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함께 동참하고 치유하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주위를 둘러봅시다. 가난하고 병든 자 있거늘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힘들어하는 자 있거늘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봅시다.

그들이 받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곧 나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일체만물은 모두 연기되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에 부쳐

지난 5월 28일부터 하반기 49일 불공이 시작되었다. 참종 당시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호국과 중생제도의 대비원을 세우시고 나라와 중생을 위한 길은 오로지 밀법(密法)에 의한 법요(法要)라고 강조하시며 '진호국가불사' (鎮護國家佛事)를 제정하였다.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누어 49일 불공을 봉행토록 함과 동시에 스승은 항상 나라와 교도(教徒)를 위하여 정진하며, 특히 나라에 어려운 일을 있을 때나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특별정진도록 교시(教示)하였다.

그로부터 31번째의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를 맞고 있다. 이번의 진호국가는 우리 진연행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불공기간 중에는 월드컵 대회가 치뤄지고 지방선거도 있다.

또한 대선은 앞두고 사회가 어수선해질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번 진호국가불사가 한 차원 높은 불공이 되도록 권선해본다. 개인의 소원성취에서 벗어나 대사회적인 서원을 세우고 불공에 들어가 볼일이다. 소아적인 불공에만 물들하지 말고 대사회적인 원력으로 거듭나는 신행이 되어야 하겠기에 드리는 말씀이다.

그리고 원력(願力) 뿐만 아니라 실천에 꼭옮기는 살아 있는 불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것들을 살펴보자. 학부로 낭비하게 되는 물을 아끼는 것도 작은 나라실천이요, 전기를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은 가정의 살림 뿐만 아니라 크게는 장래 나라의 살림에도 보람을 주는 나라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생활시 불법(生活是 佛法)이고 불법시 생활(佛法是 生活)이다. 불공은 나의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요, 국가 사회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정신상태, 생활습관이 곧 사회 구성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충분한 자양분을 토대로 구성된 사회가 바로 불교적으로 말한다면 불국토(佛國土)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밝은 사회는 바로 우리 진연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랑(資糧)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반기 불공에 즈음하여 의미있고 뜻깊은 진호국가불사로 자리매김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개인인 모두의 신행(信行)에 있어 일대 변화를 기대해본다. 타성(惰性)에 젖어 있는 자기를 더욱 다그칠 일이다. 소원성취는 잠시 접어 두고 대서원으로 정진에 들기로 서원해 본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타 풍성한 가정의 달 행사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역어르신 및 복지센타 이용자르신들 대상으로 풍성한 행사를 하였다.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슴에 꽃 달아드리기와 장기자랑을 하였으며 21일에는 주간보호센터 나들이와 24일 무의탁어르신 칠순·팔순잔치를 하였다.

특히 21일 밤섬유원지 나들이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르신 30여명이 참석하여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접집시간에 이어 훈제어 이어달리기, 풍선터트리기, 과자 먹기, 바구니에 공 넣기 게임, 조별 장기 자랑 등을 통하여 모두가 한가족임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나들이에 참석한 박효자 할머니는 "모처럼 야외에 나와서 맑은 공기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니 한층 젊어지고 몸도 가벼워졌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신 복지센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고맙습니다"며 즐거워하였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황진수 과장은 "다음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서 많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르신들이 참여하고 또 가족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는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재가복지 센터는 올해 처음



경기민요와 청가로 칠순·팔순잔치에 흥겨워 하고 있는 어르신들.

으로 무의탁 어르신 7분들에게 칠순·팔순잔치를 지난 24일에 친지상에 차려주었다.

칠순·팔순 사진촬영과 열린문화 물놀이(대표 윤정숙)의 부채춤 공연과 경기민요 사물놀이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친지가 되었다.

삼성 테스코(주) 김수진 대리는 "회사에서 각 부문별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뜻깊은 행사를 맞이하여 10명의 자원봉사와 할머니 할아버지 여름옷, 자켓, 이불, 속옷 등 80여점의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칠순·팔순잔치상을 받으신 고순례 할머니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친지상을 받으니 너무 고맙고 눈물이 앞선다"며 "여기 모이신 모두가 나의 자식 같고 형제 같고 친지 같아서 가족잔치 같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비록 가족이 없어 생일잔치를 못하신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영유통, 월마트, 청운각,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상제리제, 웨딩부페, 헛빛마을사진관등에서 후원하여 풍성한 친지가 되었다.

강남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는 한달간 구직신청자 대상으로 취업적응훈련중이다.

지난 5월 28일에 3차 적응훈련교육을 종지사 톨리원 빙야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서초 남부센터와 연계하여 55세 이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교육 이후 수료증과 취업알선의 혜택이 주어진다. 취업적응훈련은 매월 실시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다양한 행사

종립학교 동해중 불교명품 및 학생작품전



수성 이사장·혜암통리원장·경원정사·강경중 교장이 불교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불기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종립학교 동해중학교에서는 불교명품 및 학생작품전행사를 하였다. 부산 정각사에서 5월 15일~22일간 전시된 불교명품 및 학생작품 전에는 모두 90여명 160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정각사 출품한 원정종조님의 진신사리 사진 액자가 출품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경경중 교장 선생님의 티벳에서

가져온 부분 만다라인 '비로자나불' 액자, 소공스님의 '한산·습득 이성도' 액자와 다보탑 모형도 등을 출품하였으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소장 달마도 등 20여점이 출품되었다.

또한 정각사 이상록 보살님의 염주 액자를 풀이한 액자, 강길순 보살님의 육비리밀에 이광수선생의 풀이 시가 걸들여진 액자, 안한수 각자님의 순금 달마도와 반야심경 등

다수가 출품되었다.

사진부에 하봉걸 교사 일타스님 다비식, 연등 행사와 학생 작품 21점, 봉축행사 사진 6점과 그리기 부분 작품 27점 만들기 부분 50점 글짓기부분 13점 기타 피켓등 19점이 전시되었다.

동해중학생들이 손수 그리고 만든 작품은 전문성을 뛰어넘어 있으나 작품 하나 하나마다 깃들여 있는 순수한 불심은 작품 여려곳에 나타나 보는 이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수성 이사장 혜암 통리원장과 정각사 주교대행 경원정사, 성화사 주교 법공정사등 많은 스승님과 교도님이 방문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를 준비한 석동훈 과장은 "준비기간이 짧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전시회를 통해 경험을 소중히 여겨 내년 작품전에는 밀교 종단과 관련된 것과 환경에 관련된 작품을 선보이겠다" 하였다.

이달에 만난 사람



지난 5월 12일 총지사 신정희 회장에 민족일치로 당선된 김은숙 보살님을 만나보았다.

보살님은 가정에서도 모든 일들을 의논과 화합으로 지내시는 부모님 슬하에 태어나 항상 생활에서 수순과 화합의 정신으로 걸어온 분으로 이번 회장을 맡게 된 것은 부처님의 사명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조용히 응해주셨다.

▲축하합니다

- 감사합니다. 여여 신심 깊은 보살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총지사(본산)신정희장이라는 중책이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실적 저의 개인 형편으로는 저자히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이 모든 일은 부처님의 사습법(布施攝, 愛語攝, 利行攝, 同事攝)을 다시 실천하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부터 심부름꾼이 돼 지금까지 다음과 배워온 것을 행하는 기회를 부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부족하지만 순간 순간 여러분들이 도움과 배려로 이끌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지사 신정희 운행계획은

- 저는 거창한 계획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도들의 화합제일주의를 표방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야 줄 수 있는, 남을 배려하는 신정희,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신정희, 솔선수범하는 신정희, 실천하는 총지사 신정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밀법과 인연을 어떻게 맺었는지

- 15년 전 개인적인 바램으로 정각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49일 불공을 하였는데 불공기간 중 내내 환희심 가득 일어났습니다. 그런 환희심은 처음 느껴보았으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즐거움이 기뻤습니다.

특히 스승님의 가르침인 孝心과 下心에 대한 법설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 모두가 나의 것이며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원망심을 버리고 부모님께 효순함이 나의 복을 만드는 일이라는 스승님의 교훈을 다짐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저의 자식들에게도 생활속에서 그런 습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 빚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것 같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나에게 베풀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 (중략)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며 많이 잊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흔지서는 살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흔지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김은숙 회장님이 평소 좋아하는 식구다.

시에 나타나 있듯 김은숙 회장님은 보기와는 다르게(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라 키가 커서 보통사람과 틀리다는 선입견) 수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화합의 손길을 내보이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곁에 있는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다.

社告

대표전화 : (02) 552-1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발행인 : 혜암 종사 **편집장 :** 원송 대정사 **안쇄인 :** 김준배
창간 : 총기 24년(1995년) 10월 16일/1995년 8월 29일
등록번호 : 마-2360호
서울 경인교구청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45 (02) 889-0211
충청 전라교구청 : 광주시 남구 구동 29-18 (062) 676-0744
대구 경북교구청 : 대구시 동구 효목2동 443-3 (053) 743-9812
부산 경남교구청 : 부산시 진구 당감2동 64-5 (051) 896-1578
종립 동해중학교 : 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25 (051) 555-4457
금강승지수련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산 13 (043) 833-0399
사회 복지 재단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 3452-7485
구독 신청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총지총보편집실 (02) 552-1083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기정을 이루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민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기초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노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li

지상설법



<대구 개천사 주교 지광정사>

성도합니다

현세정화가 곧 내세극락이 되는 것은 윤회(輪迴)하여 다시 태어나는 깨닭이기 때문이라는 종조님의 말씀속에서 인과(因果)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인(原因)이 있기에 결과(結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안 것은 총지종에 입교(入教)하면입니다.

내가 잘못된 인과(因果)를 해탈(解脫)하기 위해서는 조상불공을 많이 해야 한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앞에 나타나는 당체설법(當體說法)들을 소홀함이 없이 하거나 정리하는 불공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저 나의 인과(因果)를 해탈(解脫)하고 기복(祈福)적인 자세에서 열심히 수행(修行)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그 튼튼한 인과공부의 기초가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수행중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인과법(因果法)을 잘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윤회(輪迴)를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정화가 곧 내세극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안염송자(眞言念誦者)의 수행이 헛수가 거듭할수록 악업(惡業)은 줄어지고 선업(善業)이 쌓여갑니다. 4년 고개나 7년 고개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연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인과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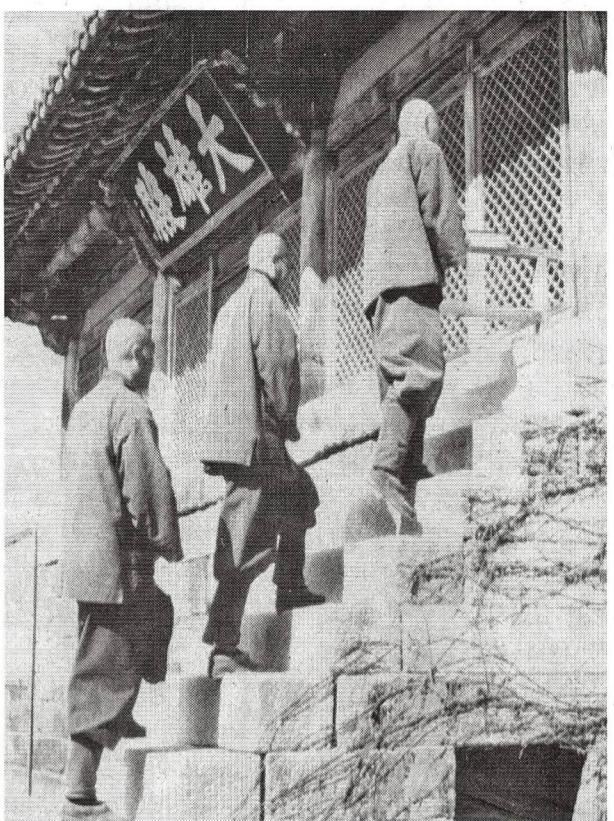
현세정화(現世淨化)가 내세극락(來世極樂)이 된다

진언염송으로 모든 유연 해탈, 真妄相爭에서 벗어나는 修行 필요

(因果法)이란 단순한 인과(因果)가 아니라 인(因), 연(緣), 과(果)로써 연(緣)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선연(善緣)에서도 내가 악연(惡緣)으로 바꾸면 악과(惡果)가 되는 것이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악연(惡緣)도 받아들이는 내가 선연(善緣)으로 바꾸면 선과(善果)가 된다는 이 참된 진리를 진언염송(眞言念誦)을 시작하지 않은 세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이 연기법(緣起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니 수행이란 참으로 포기할 수 없는 공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승불자(大乘佛子)입니다. 내가 용맹정진(勇猛精進)하여 해탈(解脫)하는 것은 곧 나를 인연(因緣)한 모든 인과관계를 해탈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실천행(實踐行)을 했을 물론이요 남을 지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선지식(善知識)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善知識)이란 법(法)과 같이 설(說)하고 설(說)한바와 같이 행(行)하는



(存在)하지요, 그 존재(存在)를 인정할 때 내가 존재(存在)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存在)하려니 그 유연(有緣), 무연(無緣)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다스리고 가르쳐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과정(過程)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인연과(因緣果)에서 연(緣)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삼세(三世) 인과법(因果法) 공부를 합니다. 진언염송(眞言念誦)을 깊게 하면 할수록 나의 무의식(無意識) 속에 잠재(潛在)되어 있는 과거세(過去世)의 업종자(業種子)의 인연(因緣)까지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세(三世)를 닦게되는 것이고 현세정화(現世淨化)가 곧 내세

부산물(副產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세생생(世世生) 살아오면서 서로 서로 맞은 인연(因緣) 속에서 내가 해탈(解脫)하기까지의 한 과정으로 보고 유연(有緣)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청정일념(淸淨一念) 환희(歡喜)한 마음으로 용맹정진 해 나간다면 나의 자력(自力)에 의해 저절로 소멸(消滅)되어 가는 것을 증득(證得)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천도불공(祖上萬度佛供)을 하든 유연천도불공(有緣萬度佛供) 하든 아니면 식재법(息災法) 증익법(增益法) 경애법(敬愛法) 등 서

원불공(誓願佛供)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궁극적(窮極的)인 목적(目的)은 내 자신의 해탈(解脫)이라는 보다 더 큰 성불(成佛)이라는 목표(目標)를 향해서 자력(自力)을 증장(增長)시키는 간단없는 정진(精進)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연여신합이(大緣與信合 - 만나기) 어려운 큰인연(法)과 더불어 함께하니)

당생불생(當生不生生 - 당생에 봄은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선스승들의 광명이 함께하는 이자리)

당생당생(當生當生 - 예나 지금이나 세세생생 함께 있네)

선지식(善知識)의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현세정화(現世淨化)는 물론 내세극락(來世極樂)을 이루하는 실천행법(實踐行法)은 진망(眞妄)의 상쟁(相爭)을 안고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 부처님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용맹정진합시다

생활속의 밀교

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서 마음공부는 시작된다

격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면서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다.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감정이 앞섰을 때 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고 흥분하여 이성을 잃는 경우이다. 옛말에 ‘참을 인(忍)자 셋을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고 까지 하였다. 이성을 잃지 않으면 어떠한 극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다.

감정이 격하자 흥분을 참지 못하는 것은 대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거나 ‘남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라고 심리학

다. 안인(安忍)은 그냥 ‘참고 견디는 인욕’이 아니다. 인욕조차도 없는 인욕, 그것이 바로 안인(安忍)이다. 그 안인은 참고 견디고자 하는 마음과 결림이 없고, 머무는 바도 없는 인욕이다.’ 힘들게 참는 인내가 아니다. 참아지지도 않는데 억지로 참는 인욕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절로 참아지는 인욕이다. 안인은 바로 인내와 인욕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화시킨 밀교 수행의 실천 덕목이다. 나의 신행(信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진심(眞心)이다. 진심을 낼수록 나의 이성이 빛을 잃어 간다. 건강한 정신을 기대할 수 있고 진정한 보살심(菩薩心)을 내기도 어렵다.

安忍바라밀 실천으로

‘참나’ 찾는 수행

자들은 말한다. 그 바탕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고, 쉽게 흥분하여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어설픈 우월감이나 비천한 열등감과 패배감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한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제어를 유행실천의 한 덕목으로 삼고 있다. 유행바리밀(忍辱波羅蜜)이다. 인욕은 ‘욕됨을 참다, 견디어 내다’, ‘모욕이나 박해를 참고 견디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에(眞)의 열(念)을 일으켜 끝까지 참아낸다’는 뜻이다. 인욕바리밀은 이러한 ‘인욕의 완성’을 뜻한다.

밀교에서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인욕(忍辱)을 안인(安忍)으로 표현한

이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마음닦는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 중생들이 진심을 내지 않고 인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안인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억지로 참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감정이 널뛰듯 하는데 마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다. 참고 견디어 내는 훈련을 거듭 반복하여 진정한 ‘안인’에 도달토록 하는 것이 진언행자의 윤리법이다.

이번 6월 월초불공기간에는 끓어오르는 마음을 제어하고, 부지런한 내입을 단속하여 보자. 마음의 평안과 안인을 얻을 것이며, 그 답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안인바리밀

모든 有緣은 나를 存在케하는 副產物

靑靜一念 勇猛精進하면 業 消滅과 解脫을 얻음

서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총지종은 인과법(因果法) 공부를 많이 한다. 또는 영식천도불공(靈識萬度佛供)을 많이 한다는 등등 이러한 말씀들을 자주 듣게 되는데 유연영식천도불공(有緣靈識萬度佛供) 하나 하나가 바로 내가 수행(修行)해가는 하나의 방편(方便) 중에 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存在)가 혼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방부모와 더불어 가족 친지 등 모든 인연(因緣)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存在)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存在)하니 나의 인연(因緣)들이 존재

극락(來世極樂)이 되는 것입니다.

영겁(永劫)을 지속하고도 남는 것은 오직 자성(自性) 뿐이라 했습니다. 오직 이 한마음 청정(淸淨)해질 때까지 우리는 수행(修行)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의 이치(理致)를 깨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작난(作亂)을 알고 마음에 체성(體性)을 알고 진망(眞妄)의 상쟁(相爭)을 아는 것이 불교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을 통하여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여섯 부처) 6식(識)을 통하여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만약에 망심(妄心)으로 처리를 한다면 여섯 도둑하고 살고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에서 인연과(因緣果)가 시작되니 우리는 진언염송(眞言念誦)이란 무기로 방편(方便)을 삼아 용맹정진하여 나를 인연(因緣)한 유연(有緣)들을 해탈(解脫)시킴이 이것이 바로 나를 해탈(解脫)시키며 진망(眞妄)의 상쟁(相爭)을 알고 벗어나는 참된 수행(修行)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통하여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가 유연(有緣)을 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 유연(有緣)을 해탈(解脫)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연(有緣)은 선유연(善有緣)이든 악유연(惡有緣)이든 지금의 나를 존재시키는

하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불자 (拂子)

루에는 장식으로 흔히 용의 문양을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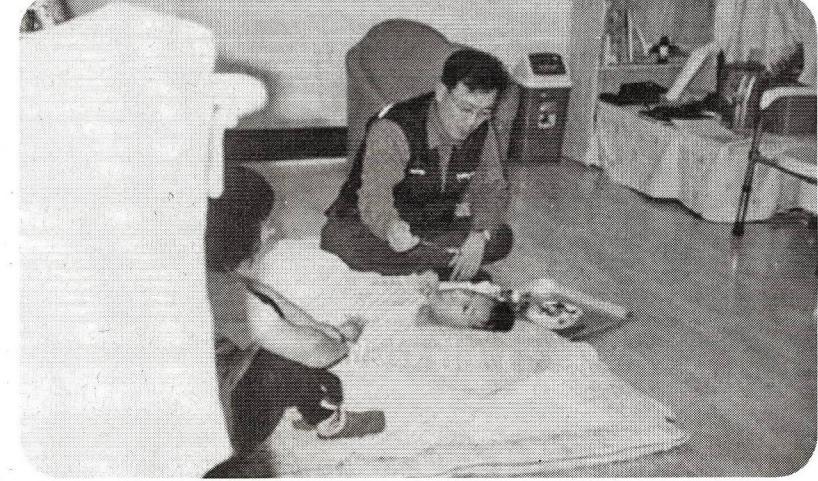
불가에서 지켜야 할 계율인 『마하승기율』에서는 비구가 화려한 불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라니집경(陀羅尼集經)』 제6에서는 관세음보살은 원손에, 보현보살은 오른손에 백불을 잡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불자를 지울(持物)로 삼는 뜻은 신상의 악한 장애나 환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선종의 장엄구로 쓰였으며 전법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과 번뇌를 털어내는 상징적 의미의 불(拂具). 불 또는 불진(拂塵)이라고 한다. 짐승의 털이나 삼(麻) 등 을 둑어서 자루 끝에 맨 것으로 원래는 벌레를 쫓는 데 쓰이는 생활 용구였다. 모양은 총체와 비슷하며 인도에서는 일반사람들도 모기 등의 벌레를 쫓는 데 사용한다. 불가에서는 흰 말의 꼬리털로 만든 백불(白拂)을 귀하게 여기며 조사(祖師)의 영정에 지울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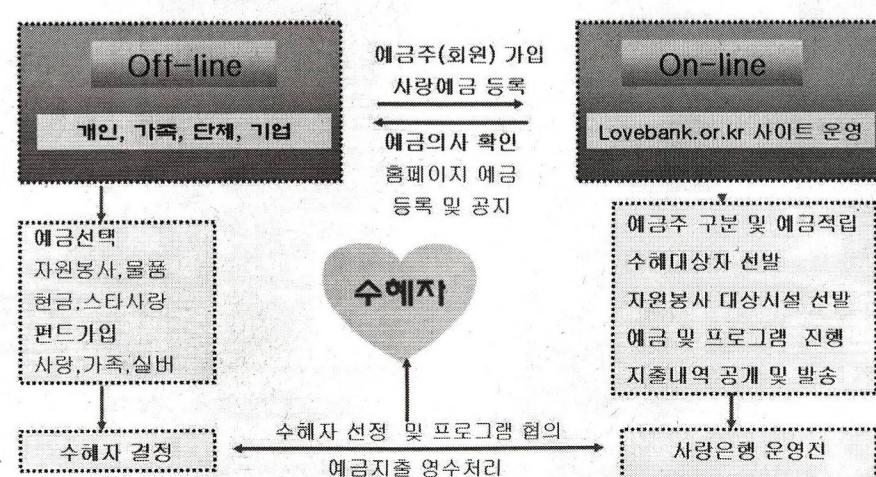
마음의 티끌과 번뇌 단절

불자를 지울(持物)로 삼는 뜻은 신상의 악한 장애나 환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선종의 장엄구로 쓰였으며 전법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Lovebank 사랑은행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돌고 도는 운희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티벳 사원 입구마다 그려져 있는 벽화(탕카)로 죽음의 신 아미가 입과 손과 발로서 바퀴를 잡고 있는 육도운회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요즘 티베트 관련 책자에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베다문헌에 등장하는 힌두교 죽음의 신으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죽음의 사자인 졸개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그 앞에 데려오면, 아미는 그 영혼이 살아 있을 때 행한 선과 악의 무게를 달아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의 수레바퀴인 탑 진 치 삼독으로 선악의 업보를 쌓고 그 결과로 끝없이 나고 죽는 운희를 계속하는 중생의 삶은 죽음의 신 아미의 손아귀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앙의 중심원을 보면 세 마리 짐승이 서로 꼬리를 물고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다.

수들은 뺨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애욕을 상징한다.

독사는 미움과 질투 등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상징한다.

돼지는 사성제의 가르침, 삼세인과 등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번뇌의 뿌리, 어리석은 마음을 상징한다.

이 세마리 짐승이 인간의 마음속에 살면서 육도운회의 고통이 계속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고통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운희세계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을 없어야 한다. 그 길은 세마리 짐승을 원수처럼 여겨 잘 다스려야 한다.

중심의 두번째 원의 오른쪽은 세마리 짐승의 힘에 끌려 다니며 어둠의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내용이다. 나쁜 업과 나쁜 인연으로 땋어진 검은 업의 세계이다. 왼쪽은 선지식을 만나 육도운회의 고통을 깨닫고 아미타불의 원력과 공력을 믿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여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도록 오른손을 들어 해탈의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왼쪽상단의 그림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이다. 입종시에 바른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불의 은빛광명의 길을 타고 즉각적으로 극락정토에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의 중심에는 6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섯갈래의 운희세계, 6도운회를 의미한다.

상단 중앙에는 계율을 지키고 공덕을 쌓아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그려져 있다. 그 오른쪽에는 생, 노, 병, 사를 끝없이 반복하는 인간세계의 삶이 그려져 있다.

오른쪽에는 인간의 세계를 그렸으며 그 아래에는 만족을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떨어지는 아귀세계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맨 아래 넓은 그림은 지옥세계의 여러가지 고통스런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왼쪽으로 그 위에는 네발달린 짐승과 물고기, 새등 축생의세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질투와 투쟁의 업보로 태어나는 아수라세계가 그려져 있다.

육도운회의 여섯가지 그림을 감싸고 있는 12연기법을 상징하는 열두개의 그림이 있다.

십이 연기법은 중생들이 업력에 의해서 삼세에 걸쳐 끝없이 생사운회를 계속하는 것을 1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사실적으로 관찰하는 법이다.



인간의 큰 죄는 무지이다. 불행과

고통은 무지에 대한 응보이다

집착한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상징한다.

열 번째 그림은 아기를 임태한 여자로 “유(有)”를 나타낸다. 아기가 배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다음 삶을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모습이다.

열한 번째 그림은 생사를 계속하는 존재가 형성되는 “유”로 말미암아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생(生)”이다. 아기 낳은 여인을 그려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고 있다.

열두 번째 그림은 인생의 여러 가지 괴로움 “노사우비고뇌(老死憂悲苦惱)”이다. 시체 나르는 사람을 그려 탄생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고통과 슬픔끝에 늙어 죽음을 상징한다.

십이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관련되어 존재한다는 인연생기의 가르침이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진리에 대한 무지, 무명에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이다.

“인간의 큰 죄는 무지이다. 불행과 고통은 무지에 대한 응보이다.”

불법을 받아들여 진리의 삶을 사는 일이나 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윤승호〉

자동차 운전 중 잘못된 자세는 척추에 계속 압력을 가해 허리를 일으킬 수 있다.

시트를 앞으로 당겨 무릎이 130도 정도 구부려진 상태에서 보레 이크나 가속 페달에 발을 편안하게 올릴 수 있어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팔꿈치는 120~130도의 굽곡 상태가 유지되면 적당하다. 시트의 등받이는 직각보다는 10~15도 뒤로 기울어진 상태가 좋고 허리 아래부분은 시트와 밀착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고개 받침대의 위치이다. 위치를 너무 낮게 하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 고개가 뒤로 젖혀질 때 지렛대 역할을 해 목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머리의 뒤통수 높이까지 올려야 충

불교 에세이

할머니를 집으로

인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문을 열지 않는가?”

“이 문을 열게 하려거든 먼저 그 활과 칼을 버려라.”

그 사람은 잡히기만 하면 주먹으로 쳐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활과 칼을 버렸으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활과 칼을 버렸는데도 어찌하여 문을 열지 않는가?”

“나는 네 마음 속의 악한 마음인 칼과 활을 버리라는 것이지, 네 손에 들고 있는 활이나 칼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아니니라.”

그 사람은 드디어 굴복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법구비유경〉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 합니다. 세상에 때문지 않은 순박한 영자가 그랬듯이

사람에 웃고 사람에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지느니라.”(잡아함경) 하셨습니다. 원한과 원망의 깔은 품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지나친 호기심이 할머니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화 속 할머니의 깊게 팬 주름과 손자 상우에게 끊여주신 닉백죽은 우리네 할머니를 느끼게 합니다. 이제 할머니에 대한 항수는 기억 속에 묻어두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 마음에 번거로움이 없기를 기원해 봅니다. 〈손승현 법사〉

지나친 관심과 호기심

순수한 마음 헤칠수도

정보 다이제스트

바쁜 운전자세는

돌로 인한 목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연합〉

성적보다 창의성 중시…

英才 선발기준 바뀐다

할 수 없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재”라며 “부모들도 영재학교를 고급 입시기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자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

여자가 말과 거짓말 잘 한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말속에 들어가는 “음”과 “아” 소리의 숫자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 남자들은 말하는 도중에 여자들보다 거의 2배나 자주 중단하거나 멈춰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 또 거짓말을 하는 도중에도 남자들은 단어간의 간격이 길어져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아채기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에든버러의 퀸마리엇대학교 과학자들은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훨씬 더 유창하게 말을 하며 거짓말을 할 때도 혀가 덜 굳는다고 말했다. 〈런던/연합〉



폐기물의 자원화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사명입니다.

생활의 부산물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폐기물 —
이 폐기물 중에는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처리,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 재생업체 육성자금 지원,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연구 및 보급 등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에 관한 모든 궁금증 —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찾으십시오.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
KOREA RESOURCES RECOVERY & REUTILIZATION CORPORATION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전화 3773-9871 FAX 780-4620

현목의 세상일기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한창 세계배축구시합으로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을 것이다. 본선을 앞둔 어제, 그러니까 5월 26일 저녁 한국과 불란서의 평가전 양상을 볼 때 한국인이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역대 세계배축구시합 출전 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어쩌면 세계가 놀랄 정도로 더 좋은 성적도 내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나, 축구든 뛰든 간에 서로 각축을 다투는 시합장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왕이면 우리 한국인이 멋진 기술과 조직력으로 매번 시합마다 승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이번 세계배축구시합 기간에는 세계인은 무관심하지만 우리네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 마당이 있다. 지방자치체의 단체장을 비롯하여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가 그것인데, 차치 세계배축구시합의 열기에 끌려 정부 우리네 살림하고는 가장 밀접한 선거마당이 소홀히 될까 우려된다. 가뜩이나 지난 80년대 중 후반을 기점으로 대중의 투표참여가 떨어지고 근래

에 이르러서는 그 투표율이 더욱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바 남한사회에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의미가 점차 희석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책임은 무엇보다 정치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네들이 벌이는 추잡스러운 정치놀음에 대중은 식상해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가 소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일 것이다. 게다가 운동경기나 오락, 전자놀이가 주는 재미가 더욱 즐겁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흥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치가 여타의 유혹처럼 재미나 흥미를 끌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박진감도 없고 그리하여 대중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솔직히 따져본다면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대중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판이 되는 것이 기존의 정치인, 또는 그 기존 정치판에 들어가 입장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더 좋은 조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정치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안정적이다.

남한의 정치는 태생적으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해방된 직후 철저하게 처단했어야 할 친일세력이 미군정하에서 특세한 점이라든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의 대중을 정신적 장애로 만든 반공 이념, 오로지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사회를 경직화한 독재정권 따위가 속한다. 하여 한국정치는 근본적으로 폐쇄성을 안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 그나마 대중이 정치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폭넓적 독재정권으로부터 벗어나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민주화'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대중은 엄청나게 높은 정치적 열망을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오른쪽과 왼쪽의 날개에서 오른쪽만

이 허용된 정치에 국한된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 이른바 '민주화운동세력'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을 한때 '용공세력'으로 규정하였던 권력에 편입되어 그 정권을 유지하는 한 부분이 되었는가 하면 정권교체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해석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 정치시장의 높은 장애를 뚫고 진입에 성공한 이후 자신들 또한 적당하게 기득권을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정치는 늘 그 밤에 그 나불인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다. 뭔가 사람들은 바뀌긴 하였는데 기아하리만치 예나 지금이나 판에 박힌 놀음만 계속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6월 13일 치뤄지는 지자체 선거에는 남한의 정치에 새로운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반공 이념으로 중무장한 사회분위기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결성된 사회당이 전면에 나섰다. 예전에도 민중진영의 대통령후보가 나온 적도 있고 또 진보 진영을 표방하는 정당 또는 후보가 선거국면에 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양상이 다르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전국에 중요 거점에 자신들의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사회당의 대표 원용우씨가, 민노당에서는 이문우씨가 출마하였고 인천에는 사회당 소속의 김영규 인하대 교수가 출마하는 등 전국 광역단체장 및 지자체의 장과 의원에 출마하였다. 이미 널리 알려진 민주노동당과 더불어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고 그들의 선택으로 남한사회에 사회주의를 널리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문화방송의 100분토론이라는 시사토론프로그램에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5명을 전부 초청하여 각자의 견해를 밝혔다. 물론 사회당 후보도 나왔다. 지금껏 관례로, 아니 선거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국회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당의 후보만 방송에 출연시켜 편파적인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문화방송은 그런 점에서 진실보 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당연히 시정해야 할 일인데도 기득권을 어떻게든 고수하려는 정치인들의 속셈에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어쨌든 문화방송에 출연한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사회당의 원용우후보는 첫 인사말에서 거칠침없이 '나는 사회주의입니다.'라고 내뱉었다. 글쎄 아직 국가보안법이 별개로 살아있는데도 이런 것이 용인되는 것 보면 남한사회가 그만큼 나아졌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모르긴 몰라도 방송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가 처음일 것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좌파진영의 정치적 실험은 그간 몇 번 있었으나 큰 걸음으로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삶이 벼랑에 몰린 민중으로부터도 큰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였다. 아직도 강하게 대중의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반공이념의 반향도 작용하였다. 이번 2002년 6월의 지방선거는 그간의 정치적 실험에 보태어 대중 앞에 당당히 나선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자못 관심이 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정당투표제가 시행된다. 후보와는 별개로 선호하는 정당에도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발판일지 모르지만 역사와 사회발전에 자신을 나누려는 이들에게는 반공이념으로 중무장한 우리 사회에 대한 사상적 도전의 힘찬 발걸음이다.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9화~

글 그림/정수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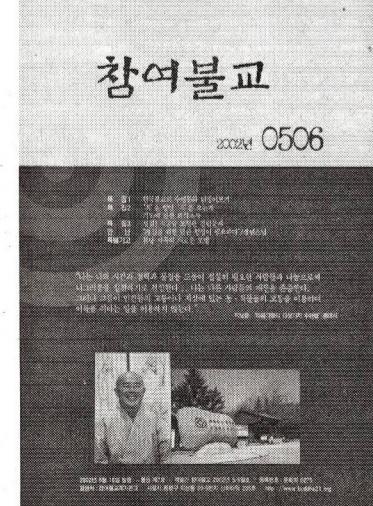
격월간 참여불교

Engaged Buddhism

5·6월호 발행

"나는 나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너그러움을 실천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들의 고통이나 지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 틱낫한, '마음다함의 다섯가지 수련법' 중에서 —



2002년 5·6월호(통권7호)

특집 1 한국불교의 수행문화 뒤집어보기

특집 2 '복'을 빌면 '복'은 오는가
기도에 관한 의식조사

특집 3 생점! 석굴암 모형관 건립문제

만 남 "결집을 위한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정념스님

특별기고 본당 사목의 새로운 모델

참여불교재가연대

H:www.buddha21.org E:buddha21@budgate.net 우: 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205호 T:745-7799

격월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싣고자 합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 02-745-7799

한국 최초로 발굴한 비구니 큰스님들의 행장

깨달음의 꽃 1, 2

하춘생 저/신국판/1권 296쪽, 2권 272쪽/각권 정가 8,000원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를 세상의 미망에 젓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항의 모래알보다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융맹정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깨달음의 보배를 혼자서 간직하고 있는 것은 죄일 수 있다. 하춘생 씨가 이번에 전놓는 책 속에 들어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모두 그러한 꽂피우기를 하다가 영원의 시간 속으로 잡작한 고귀한 꽃들이다. — 한승원(소설가)

이 책은 끝없는 인고의 세월 속에서 목숨히 수행에 전념한 비구니 큰스님들의 삶을 통해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력을 통한 중생제도의 대비심이 잘 나타나 있다.

— 명성스님(문학가)

제1권 법희, 성문, 만상, 일업, 본공, 월혜, 선경, 대양, 광호, 음민, 금봉, 해목, 수죽, 상근, 금란, 은영, 제2권 정행, 인종, 혜종, 수진, 진오, 윤호, 괴우, 징일, 자현, 도준, 천일, 세동, 철법, 만선, 도원, 스님 등 총 서른 두 분 비구니 큰스님들의 행장 수록

전화 (02)730-8976 돌봄여래



전국 유명서점 절찬리 판매중!

한국불교 전통문화 체험 관심고조

2002년 월드컵 행사 외국인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2002년 한일 월드컵게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30만~50만여명이 한국을 방문 보고와 함께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불교계는 템플스테이 사업을 상설화하는 등 다양한 한국불교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행중에 있다.

지난 12일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는 '한국방문의 해 추진위원회'가 월드컵을 맞아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맛보이기 위해 마련한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캐나다 호주 등 20개국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37명이 참가하여 연등 만들기, 탑들이, 탁본 끄기, 빌우 공양 등을 직접 체험했다.

조계종은 외국인 포교 및 주5일 근무제에 맞춰 템플스테이 상설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3년 계획안을 수립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빨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 신청자가 아직 적고 흥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어권을 제외한 유럽인들

을 위한 통역문제와 획일화된 사찰 체험 프로그램, 교통문제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색과 정서가 살아 있는 영화 '童僧'

영화 童僧 세계영화제 손짓

9월초 전국에서 개봉될 영화 '동승'이 세계 유수 영화제에 잇따라 초청을 받고 있어 관심이 끌고 있다.

(주)스페트럼 필름 코리아의 동승은 한국의 색과 정서를 아름답게 담고 있어 이미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등 유수 국제영화제에서 공식초청으로 받았고 상하이 국제 영화제 경쟁부분에 진출을 하였다.

영화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 동자승 도님(김태진)과 성숙의 과도기에 놓은 젊은 스님 정

심(김민교)의 눈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다. 안동의 봉정사, 순천 선암사, 오대산 월정사 정선 민동산, 태백산 맥밀대에서 산사를 둘러싼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계절의 신비로움을 동화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스님 150명 버스에 감금

고속철 관통 반대 입장 청와대 전달

'금정산·천성산 관통 경부고속 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이하 대책위)' 소속 스님들이 1시간 동안 버스안에 감금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5월1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대책위의 반대 입장장을 전달하려는 150여명의 스님들이 탄 차량을 경북궁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포위한 채 감금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공사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상경한 스님들을

감금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폭거이며 청와대측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지난 4월16일 생명 존중과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 반대를 위한 종교인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고속철도 공사 중단하고 민족의 얼이 살아 쉬는 국토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태계를 정부와 시가 앞장서서 보존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체택한바 있다.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지난 10일 진각종 종인원에서 회당 대종사 탄생 1백주년 기념 사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시작했다.

진각종 혜일 총인을 비롯해 사부 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회합. 회향을 주제로 한 진행되었으며 회당 대종사의 대규멘터리 상영, 개식식, 강도발원문, 대통령 축사, 기념사, 선언문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 법신불의 화현이 있으며 혼란한 시대에 중생구제를 위해 새로운 교화법편을 연구하던 뛰어난 불교개혁자 이셨다"며 참여. 회합. 회향의 기념사업 정신은 작게는 창종정신의 승화이자 진호국가 불사의 새로운 실천이며, 크게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지표이다"고 강조했다.

진각종은 지난 3월 인사·감사·봉사·회사를 기치로 내전 인간사운동선포식을 시작으로 종조탄생 1백주년 기념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다.

불기 2546년 봉축 조국통일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부처님께서 오신 뜻깊은 이날을 맞아 남과 북(북과 남)의 전체 불자대중은 부처님 깨달으신 진리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한마음 기울여 남북(북남) 각지 사찰들에서 동시법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아울러 우리들의 간절한 통일소망과 의지를 담아 부처님 전에 삼가 이 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내 나라 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민족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행을 벌려 나가겠습니다.

삼천리 내 조국강토는 거래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남과 북(북과 남) 불자 모두의 영원한 복도랑입니다. 이 신성한 조국땅에서 더 이상 동족끼리의 갈등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공멸을 불러오는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통일에로 가는 길 혼난하여도 6.15공동선언의 합의아래 하나로 뭉쳐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겨레의 염원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이땅위에 융성번영하는 통일된 조국, 현세의 지상정토가 일어설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불심화합하여 그날을 앞당겨 나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언제나 두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6년 성탄절 봉축 조국통일 기원

남북(북남)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불기 2546년 5월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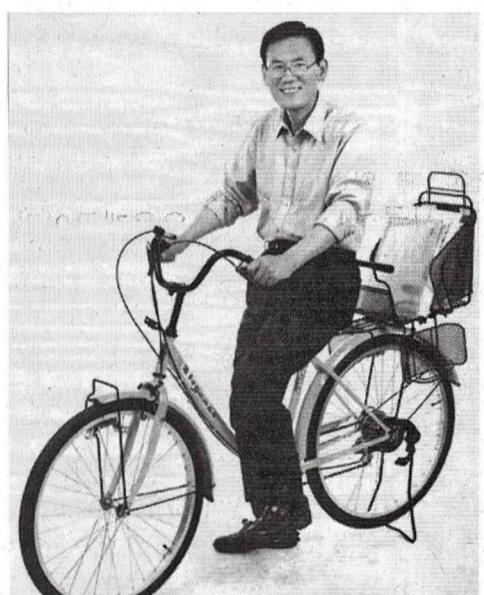
玉風이 불고 있다

서울시장 이문옥 후보 출마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 전 전국불교운동연합 의장)후보가 눈에 띈다. 아직 정치조직과 당선 가능성에는 뒤떨어져 있지만 어느 후보보다 청렴도와 자질에서 玉風이라 불릴 정도

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990년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중이었던 이문옥후보는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감사가 상부의 명령으로 부당하게 중단된 비리를 양심선언하고 구속되었으며 이후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부패방지법률 제정에 힘써왔던 사람이다.

특히 그는 불교의 자주화와 건강한 불교, 생활속에 녹아있는 살아있

는 불교를 위해 스스로를 닦고 참회하고 개인 수행을 계율리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어렵고 힘들때일 수록 부처님과 부처님 진리에 의해 한눈팔지 않는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지난 정치권에서 불렀던 蘆風의 바람이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玉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께 꽂한 손 흠 페 이지 (<http://www.moonok.com>)

동정

• 불교총지종 복지재단은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인근 성보아파트 부녀회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7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양말, 팬티, 떡등을 보시하여 나날이 개인화되고 어른 공경정신이 헤이 해지는 현대사회에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 제5회 경로법회와 제12회 청소년 여름수련대회 기조 준비 한창.

을 7월말부터 있을 경로법회와 여름수련대회 준비를 위한 기초작업이 한창이다. 장소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예년과 다르게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1교도 10부 총지종보

법보시합시다

총지종보는 불교총지종의 신문입니다.

불교총지종은 실천불교, 생활불교를 기치로 내걸고 자리이타의 대승정신을 일상속에서 실천하여 오직 마음의 실상을 찾는 재가불교입니다.

교도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총지종을 포교하는데 종보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길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 연일 언론 매체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으나 양당구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구도에서 벗어나 인물중심과 그 지방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정책과 비전 자질을 중요시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깨끗한 손' 이문옥

오는 6월13일 지방 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선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거제정당인 한나리당과 민주당에 '평선·군조종단'의 후보들이 청련도와 정책비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교구 합창단을 찾아서

사원팀방은 종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양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목소리에 부처님의 법을 싣고

가릉빈가 경인교구 합창단의 화음은 진언의 향기가 솔솔~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고
이제는 가슴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매주 수요일이면 아름다운 화음의 노래가 총지사 법당에 가득 하다. 마치 아름다운 소리로 진언을 전하는 묘음조(妙音鳥) 같이 무명 세계를 밝히는 연등처럼...

난 22일 총지사 법당에서 맑은 부처님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때론 투박하고, 때론 아름다운 하모니가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듯 듣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심어준다.

경인교구 합창단(단장 최채숙· 불명: 원각화· 실지사 회장) 합창연습이 한창이다. 30여명의 단원들이 모여 각각의 독특한 목소리를 다듬어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커다란 묘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흔한 물건에 대



1977년 경인교구 합창단 창단하여 부산 정각사에서 최초로 교도들 앞에서 음성공연을 하고 있다.

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대한 고마움이나, 공기에 대한 고마움, 혹은 물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루라도 없으면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흔하지만 가장 고맙고 유익한 물질들...

공기가 회박한 곳에서 공기의 고마움을 빼앗기게 느끼며, 타는 목미를 기득한 자에게는 한모금의 물은 감로수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물건이 된다.

경인교구 합창단이 마치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특별히 나타남 없이 언제나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교도들에게 감로수로 때로는 청량한 공기로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곤 한다.

불교에서는 음성공연을 하는 이들을 흔히 가릉빈가라 한다. 아름다운 소리로 불법을 설하는 상상의 새를 말하며, 극락정토의 설산(雪山)에 살며 머리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과 날개, 발, 꼬리의 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목소리와 춤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고운 자태만큼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종단의 애경사에 밟았고 나서는 합창단의 모습에서 보살의 정신을 배워본다.

경인교구 합창단을 가릉빈가라 칭한다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종단의 주요행사와 애사 경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목소리와 화음으로 뜻 교도들을 즐겁게 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표현하기에 그렇게 칭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경인교구 합창단은 불교총지종과 역사를 함께 하고 있다. 원정대성사님의 요구에 의해 1977년 실지사에서 창립되어 종단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한때는 종단의 가장 큰 보살들의 모임으로 자리 를 잡아갔으나 이후 종단의 관심과 후원이 멀어지자 그 열기가 급속히 식어갔다.

이후 10대 통리원장 이었던 법공정사(現 성화사 주교)님과 11



최채숙 단장(가운데), 지휘자 박묘정(좌측), 반주자 조경숙(우측)
경인교구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3인방

대 통리원장 총지화 전수님의 노력으로 1995년에 재창단 되었다.

종단의 관심과 노력으로 최채숙 보살님(실지사)을 단장으로 지휘자 박묘정 보살님(총지사), 반주자 조경숙 보살님(총지사), 재정총무 보덕재보살(밀인사), 총무 노진숙보살님(정해서원당)을 주축으로 단원 30여명이 금강같은 단결력으로 종단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합창단 출신의 승님도 배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합창단의 신심을 가히 짐작할수 있다. 바로 묘심해전수님이 경인교구 합창단 출신임을 강조하신다.

"합창단은 단순히 음을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불공하는 신심이 깃들여져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화음이 됩니다"고 최채숙 단장님은 강조하신다.

가장 불교적일 때 노래가 잘됩니다. 30여명의 단원 제 각각 음색과 음정과 목소리의 색깔이 있어 화합하지 않고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합창은 깨진 화음과 노래로 나타납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중 하나인 화합의 정신이 합창의 세계에서 나타납니다. 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서로 하나로 되려는 작은 마음의 쓰임이 하나의 커다란



지난 전방칠성부대에서 위문공연후 군악대와 함께 칠칵
화음의 물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장님의 불교와 합창에 대한 일장 연설이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설명은 아주 쉽게 가슴에 와닿는다.

그리고 경인교구 합창단의 앞으로 계획과 커다란 서원으로 끝을 맺었다.

앞으로 경인교구 합창단 단원배가운동을 벌여 지금의 합창단을 3배의 수자로 늘려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연합합창단에도 참석하고 문화행사에 합창단 참여와 여력이 되면 경인교구 합창단 음악발표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봉행하는 서원을 가지고 차근차근

배달겨레 쉼쉬는 조용한 나라
부처님 금빛얼굴 가득히 웃음지어
중생의 외로움 모두 다 씻어주는
천육백년 길고 긴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
나라와 겨레를 복되게 하리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경인교구 합창단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하였던 종단의 배려와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법공정사, 총지화 전수,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살펴 주신 인선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교도들은 경인교구 합창단이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즐거움이 생겼다.

아스라이 멀고 먼 나라



지난 총지사 본존 봉안불사에 참석하여 친불가 합창을 하고 있다.

불교 총지종 경인교구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노래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공양하실
진언행자들의 많은 동참과 관심바랍니다

합창단원 모집

◇모집인원 : ○○명

◇모집기간 : 총기31년 6월30일까지

◇신청자격 : 음성공연에 관심있는 진언행자

◇문 의 : 02)983-1492(단장 : 최채숙)

불교 총지종 경인교구 합창단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하워드 커틀리가 물었다.

"당신은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을 달라이 라마와
마주앉아서 던져본다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달라이 라마·하워드 커틀리 | 뮤시화 출판 | 351쪽 | 값 9,500원



14대 달라이 라마 편집 기획
그를 바라보는 거의 예술 그는 두고 두고 미소를 짓고 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이소하게 만들었다. 그는 티벳의 절지 지도자 달라이 라마이며, 몇 번의 학술한 영성사회의 지도자다. 왜 그는 그토록 언성이 있거나? 종교를 초월해 진실의 힘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달라이 라마.